



국내 최초의 양·한방 디지털 협진 병원이라는 일산불교병원의 개원 첫 날, 1층 창구앞에는 진료를 받기위해 병원을 찾은 불자들이 붐볐다.

“꼭 와보고 싶었어요” “잘 오셨어요”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개원 하던 날



일산불교병원은 불교정신을 반영한 건축양식을 채택했다. 사진은 고 집멸도 사당제를 상징한 4층 높이의 외래진료동 로비 전경.



진료 개시식을 마친 이사장 현해 스님(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한 현성 스님, 홍기삼 총장(왼쪽 끝) 등 제단 임원들이 병원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원장 이석현)이 1000만 불자들이 염원을 안고 6월 29일 문을 열었다. 개원을 알리는 오색천이 내걸린 현관문을 들어서자 유리지붕 아래로 넓고 확 트인 병원로비가 펼쳐졌다. 오전 일찍부터 개원 첫날 진료를 받기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적지 않았다. 먼저 외래접수대로 걸음을 옮기자 친절한 미소와 깔끔한 새 유니폼을 반듯한 차려입은 여직원들이 반겼다. 모든 것이 새것이어서인지 깨끗하고 상쾌한 느낌이다. 국내 최초의 양·한방 협진 디지털 병원이라는 일산불교병원의 자랑처럼 원-스톱 서비스로 진료시간, 담당의사 등을 안내 받고 1층 정형외과 로비에 있었다. 통합의료정보서비스 덕분에 모든 창구에서 진단서 처방전 수납 퇴원수속 등이 네트워크를 통해 한번에 처리되고 있었다. 대형 LCD모니터에 진료 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뜨고 차를 기다리는 환자들. 이날 환자들은 그동안 불교병원 개원에 관심을 두고 지켜봐왔던

국내 최초 양·한방 협진 디지털 병원 차트 네트워크화, 통합의료시스템 자랑

불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고양시 원당에서 찾아왔다는 이숙자(68)보살은 도선사 신도. 불교병원 개원을 손꼽아 기다렸다는 이 보살은 “다들 친절하고 새 병원이라 더 맘에 든다”며 환하게 웃었다. 박희화(65) 보살은 아침 7시 안양서 집을 나섰다. 조계사 신도라는 박 보살은 “먼 길이지만 불교병원 개원이라니 꼭 한번 와 보고 싶었다”며 “자원봉사활동에 자주 참여하면서 일산불교병원 개원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 우뚝한 허리와 무릎 관절질환을 앓아온 박 보살은 이날 오전 우리나라 정형외과 최고 권위자라는 태석기 교수로부터 검진을 받았다. 일산불교병원은 1994년 병원 설립을 결의하고 1998년 5월 착공을 시작, 2002년 9월에 준공됐다.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건립된 일산불교병원은 건축 설계부터 불교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특히 스님과 불자를 배려하여 특별히 마련된 공간들이 돋보인다. 총 1,000병

상(초기 400병상)의 초대형 종합병원으로 연건평 2만7천여 평(지하 2층, 지상 12층)에 외래진료동과 입원병동, 진료지원동, 장례식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사비로만 1300억원 가까이 지출됐고, 초기 개원 준비에 따른 장비도입과 시설 등을 포함해 약 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개원시기를 결정하지 못해 수차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제대로 된 불교병원이 있어야 한다는 불자들의 원력은 꺾이지 않았다. 수백여의 삼보정재가 모였고 결국 이날 병원은 개원했다. 일산불교병원의 정식 명칭은 ‘동국대학교병원+한방병원’. 이틀에서처럼 국내 최초로 양·한방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갖춰 의료계의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통합 효과를 극대화시킨 일산불교병원은 치료·예방·요양에서 건강관리까지 연계된 종합 의료체계를 지향한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 모든 차트는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 따라서 병원 내에서 필름이나 종이를 찾아볼 수 없는 것도 큰 특징이다. 고화질 카메라가 장착된 17곳의 수술실, 조형모델이 가능한 무균수술실,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등 최첨단 의료장비 역시 국내 최고 수준이다. 특히 아산중앙병원을 국내 최고의 병원으로 키워낸 민영일 교수팀, 심장전문 이명득, 정형외과 태석기 교수 등 권위 있는 의료진을 초빙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소화기병센터, 심장혈관센터, 관절질환센터, 건강증진센터 등 전문센터를 주축으로 양방병원 32개, 한방병원 8개 진료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건강증진센터는 양·한방 최고의 명의가 총력을 기울여 준비하는 일산불교병원만의 자랑이다. 지난 2004년 10월 의무위원장에 취임한 이석현 원장은 “최고의 의료진, 100% 디지털화 된 시설, 첨단장비, 불교적 심성을 가진 직원들의 친절한 서비스가 일산불교병원의 강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병원을 찾은 불자들은 한결 같은 마음으로, 천만 불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최고의 병원으로 일산불교병원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염원했다. 031)961-7000 www.duho.org 일산=조용수 기자·사진 고영배 기자

일산불교병원 돌아보기

3D 64슬라이스, 생생한 입체 영상 보여줘
 병원내 법당 마련, 사찰음식점 입점 예정



1층 로비에 들어서면 소화기병센터를 시작으로, 정형외과, 내과, 피부과, 비뇨기과, 소아과가 위치해 있다. 특히 통합진료실은 환자에게 현재 질병 외에 다른 질병이 발견될 때 곧바로 연계 치료가 가능하도록 모든 진료과가 하나의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스님들의

경우 우선해서 통합진료실 이용이 가능하다. 중앙에 위치한 분수대를 사이에 두고 최첨단 자기공명영상(MRI)과 CT 장비를 보유한 영상의학과와 가정의학과, 성형외과 및 응급실을 1층에서 만날 수 있다. 국내 단 3대뿐인 ‘3D 64슬라이스(신체를 64방향에서 입체촬영)’ CT기는 마치 몸속의 장기를 직접 꺼내 보는 듯 생생한 입체영상을 제공한다. 2층은 심장혈관센터를 주축으로, 치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및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가 있으며, 내과 중환자실과 심혈관센터 검사실, 소화기 검사실, 신경계 검사실 등이 위치해 있다. 7월 19일에 개원하는 한방병원이 위치하는 3층은 한방 치료에 대한 수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석현 원장과 민영일 교수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건강증진센터는 약 500여 평의 규모로 4층에 배치됐다. 일반 병동이 시작되는 4-11층은 환자들의 요구에 맞게 테마별로 포진해 있다. 4층은 주로 산부인과와 소아과 중심으로 병동으로, 5-6층은 양·한방 통합진료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는 한방병동과 신경계중환자실로 설계되어 있고, 무균실인 조형모델이식실이 7층에 위치해 있다. 일산의 전망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11층의 특별 병실 3곳은 35평 규모로 회의실과 가족실을 갖추고 있다. 또,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찾아와 예뻐할 수 있는 5층에 약사법당, 지하 1층에 지장법당이 있어 불보살의 가피를 얻을 수 있게 했다. 신식의 대가인 선재 스님이 운영하는 사찰음식점도 곧 들어설 예정이다.



내부 장기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최첨단 CT촬영기.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 730-0705

티벳 성지 순례 8일

여행경비 : ₩ 1,890,000원
 (중국 비자비, 가이드, 기차표 포함)

왕자 스타드에서 깨달은 자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오묘한 모음에 밀고 티벳 불교 성지순례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다녀 오실 수 있습니다.

미얀마 태국 성지 순례 6일

여행경비 : ₩ 1,290,000원

화려한 황금빛 에머랄드 사원이 있는 부처님의 나라 태국과 세계 8대 불가사의중 하나인 천년 보고 앙코르와트의 신비를 간직한 미얀마가 여러분을 불은(佛恩)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중국의 6대조를 모신 광주 남화선사 순례 5일

여행경비 : ₩ 790,000원
 10명이상 출발

삼보에 귀의 하옵고
 땅치는 중국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록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